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 어머니는 서양에 비해 자녀와 심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성희, 임성택, 2010; 최인재, 2006; 허재홍, 진현정, 2008; Ng, Pomerantz, & Deng, 2014; Ng, & Wei, 2020).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한 개념으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Child-Based Self-Worth)이 제안되었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부모가 자신의 가치감을 자녀의 수행 수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Eaton & Pomerantz, 2004),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은 부모란 자녀의 성공이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녀가 성공하면 자부심을 느끼고 반대로 자녀가 실패하면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한국 부모, 특히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을 가능성을 부모에게서 자녀가 갖는 존재적 의미나 가치, 그리고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 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어머니는 자녀와 자신 간에 심리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은 자녀와 자신을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혼연일체로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자녀를 자신의 신체의 일부 혹은 분신으로 표현하며(최인재, 2006), 자녀의 정서를 동일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자녀의 존재적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 어머니들에게 자녀는 '자기 자신', 또는 '인생의 전부'로 응답하고 있다(김세영, 정태연, 2013; 이운기, 2005). 심지어 부모는 자신이 자녀와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등, 2002). 이 결과들은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는 자신과 분리하기 어려운 매우 밀착된 존재임을 말해준다. 자녀를 자신의 분

신으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개입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자녀를 자신의 삶의 의미로 여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의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자녀의 삶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영, 정태연, 2013).

여러 선행 연구들은 한국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성공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상황 50개 중 3위가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 줄 때'로 나타났다(홍기원, 김명소, 이종택, 한영석, 2003). 또한, 한국인의 성공에 관련된 사회적 표상 분석 연구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이 자녀의 교육적 성취와 자녀의 발전 및 화목한 가정을 들었다(박영신 등, 2002). 자녀의 성공은 성인 부모의 행복과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3).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한국 사회의 성공 중시 흐름과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 발전과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 수용이 진행되면서, 개인적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상대적 우월감 등이 중시되면서 부모의 자녀 성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Park & Cheah, 2005). 특히 한국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체면과 학업적 성취를 중시하는데(Choi & Lee, 2002), 이는 학업성취가 출세와 입신양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식은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 문화와 맞물려 가족 구성원의 성취가 가족 전체의 체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수인, 2010).

한국 부모의 자녀 성공에 관한 높은 관심은

교육열에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의 교육열 현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부모는 자녀 교육을 통해 부모가 한을 대리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이종각, 2003). 한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유교적 전통, 특히 조상-부모-자녀로 이어지는 부자중심축의 문화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중시하게 됨을 의미한다(정순우, 1999).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필수조건이라고 믿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된다(김영화, 1992). 자녀의 성취를 부모 자신의 성취로 간주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취로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박아침, 1998).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에 대하여 단순히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당연히 이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현주, 이재분, 이해영, 2003).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일관되게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박영신 등, 2002; 박영신, 김의철, 2003; 현주 등, 2003).

국내에서 진행된 부모의 기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왔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업에 대한 부모가 보이는 성취 기대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Zhao & Wang, 2014), 자녀의 학업성취에 관한 부모의 기대 연구는 대부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불안감이 증가하였고(송영명, 2011), 과도한 부모의 성취 압력은 자녀의 시험불안(정중희, 정현희, 이귀숙, 2009), 학업스트레스(박서연,

정영숙, 2010), 학업소진(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부모의 기대를 부담감, 반항심, 원망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느끼고 있음을 보고하였다(이도형 등, 2018).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 기대가 자녀의 학업성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추상엽, 임성문, 2008)와 자기조절 학습효능감(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있다. 이는 자녀로 향한 부모의 학업성취 기대를 자녀는 자신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학업에 대한 지지로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선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에 대한 중시 흐름과 자녀가 갖는 존재적 의미를 토대로 한국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공, 특히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박영신 등, 2004; 추상엽, 임성문, 2008), 자녀로 하여금 불안이나 학업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남상필 등, 2012; 박서연, 정영숙, 2010; 송영명, 2011; 정중희 등, 2009).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성공을 최대화하고 실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Crocker & Knight, 2005; Crocker & Wolfe, 2001). 따라서 자녀의 성공을 중요시하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최대화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의 감정, 행동, 생각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Grolnick, Price, Beiswenger, & Sauck, 2007).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란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죄책감 유발이나 애정 철회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심리적·개인적 영역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양육 행동이다(Barber, 1996).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에 관한 연구는 일관되게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향한 심리적 통제가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중국 어머니가 미국 어머니보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더 높았지만, 두 국가의 어머니 모두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1년 후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g et al., 2014). 국내에서도 초등학교와 그들의 어머니 및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향해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청소년 자녀를 향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유선, 유성경,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부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배효숙, 홍혜영, 2017; 안유선, 유성경, 2019; 이은선, 김종남, 2019; Soenens, Vansteenkiste, & Luyten, 2010),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 발달을 방해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다(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Barber & Harmon, 2002; 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 Hauser, Powers, & Noam, 1991; Shulman, Collins, & Dital, 1993; Vansteenkiste,

Zhou, Lens, & Soenens, 2005).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자녀의 수행에 근거를 두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Eaton & Pomerantz, 2004)을 갖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과거 성취뿐만 아니라 미래 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을 기대할 것이다. 기대(Expectancy)의 유형에 어떤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당위적 기대가 있다(Higgins, 1992).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를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로 살펴보고자 한다(이준형, 2017). 자녀가 좋은 성적을 꼭 받아야 한다거나 좋은 대학에 꼭 입학해야 한다는 기대를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기대는 당위적 기대의 예가 될 것이다. 문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당위적 기대는 그런 기대를 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김민정, 2011; 박은희, 이소희, 2004; 전경숙, 1996; 조유진, 2013; Liao, Gramann, Feng, Deák, & Li, 2011).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높은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준형, 2017).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문영심, 2004).

본 연구는 두 가지에 주목하여 출발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자녀와 밀착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자녀의 성공을 중시하고, 자녀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기가치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가하는 심리적 통제가 관련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주목하였다(설경옥 등, 2015; 이미정 등, 2011, 전숙영, 2012; Ng et al., 2014). 그런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매개하는 선행 요인으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초점을 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다. 즉, 선행 연구에서 발견된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 기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자녀를 향한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를 향한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청년 자녀에 대한 당위적 기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간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의 관계에서 청년 자녀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년 어머니 32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중년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52.47세로 40대가 103명(31.9%), 50대 190명(58.8%), 60대 30명(9.3%)이었다. 중년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43.0%(139명)가 가장 많았고, 전문직 21.7%(70명), 서비스직 19.8%(64명), 기타 15.5%(50명)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44.3%(143명)로 가장 많았고, 고졸 42.7%(138명), 중졸 5.9%(19명), 대학원졸 이상 3.7%(12명), 초졸 3.4%(11명) 순이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공동체 모임과 회사 등을 방문하였다.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내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고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최초 3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 대상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하여 최종 32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측정하기 위해 Eaton과 Pomerantz(2004)가 개발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척도(Maternal Child-based Worth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발달심리학 교수와 전공 대학원생이 원척도를 번역 한 후, 번역된 문항들을 통·번역 전문가가 다시 영어로 역번역 하는 과정을 거쳐 의미가 동일한지 확인하였다. 그 다음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도록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1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구성하는 문항에는 '내 자녀의 실패는 나의 실패이다.', '내 자녀의 성취는 내 자존심이다.', '내 자녀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준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Ng, Pomerantz와 Deng (2014)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각각 .89,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였다.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Leung과 Shek(2011)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Chinese Parental Expectations of Child's Future Scale(PECF)을 이준형(2017)이 번안하고, 기대에 대한 표현을 연구 목적에 맞게 당위적 표현으로 변환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척도는 총 17개 문항,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10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성공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의 5개의 하위요인에는 교육적 성취(2문항), 교육적 기대(2문항), 자립 및 개인적 수행(5문항), 직업(5문항), 가족에 대한 의무(3문항)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를 구성하는 문항에는 '내 자녀는 자기 직업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자녀가 미래에 성공하는 길이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Leung과 Shek(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

고, 이준형(20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척도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하고 전숙영(2007)이 번안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를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심리적 통제 관련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지각된 심리적 통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심리적으로 통제하는지를 직접 측정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의 내용을 어머니를 주어로 하는 문항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신다.'를 본 연구에서는 '나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다.'는 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통제 척도는 총 16개 문항,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6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를 향한 심리적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심리적 통제의 6개의 하위요인에는 감정 불인정(3문항), 불안정한 감정 기복(2문항), 애정 철회(3문항), 자기표현제한(3문항), 자녀 비난(3문항), 죄책감 유발(2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한 전숙영(2007)의 연구에서 심리적 통제 척도의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였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23.0과 AMOS 26.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3.0을 이용하여 신뢰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조모형의 모수의 수를 줄이고 오차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문항 꾸러미를 작성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넷째,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변인들의 왜도 값 범위는 -.32에서 .28, 첨도 값 범위는 -.31에서 -.10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왜도, 첨도 값의 절대값이 정상성 판단 기준 2와 4를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1에는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r=.46, p<.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32, p<.01$)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14,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9개의 측정 변인들이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3개의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결과, $\chi^2=65.281(df=48, N=323)$, GFI=.969, NFI=.977, TLI=.991, CFI=.994, RMSEA=.033(90% 신뢰구간에서 .002~.052)로 나타나 구조모형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세희, 2000; Steiger, 1990). 일반적으로 수렴타당도는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일 때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Wang & Wang, 20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에 대한 잠재변인 요인부하량을 보면,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78~.92,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는 .80~.8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80~.92로 모두 유의한 요인부하량을 보여줌으로써($p<.001$), 본 연구에 사용된 9개의 측정 변인들이 3개의 잠재변인을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표 1. 중년 어머니의 변인 간의 상관(n=323)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3-3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1	1-1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1	.92**											
	1-2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2	.89**	.71**										
	1-3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3	.91**	.80**	.68**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2	2-1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1	.46**	.42**	.42**	.89**								
	2-2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2	.47**	.43**	.43**	.89**	.91**	.74**						
	2-3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3	.37**	.34**	.34**	.35**	.36**	.68**	.7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3	3-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1	.41**	.37**	.37**	.36**	.89**	.13*	.12*	.12*	.92**			
	3-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2	.32**	.30**	.27**	.31**	.14*	.15**	.16**	.17**	.92**	.78**		
	3-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3	.32**	.31**	.27**	.29**	.11	.10	.10	.09	.88**	.69**	.74**	
왜도			.28			.24							-.32
첨도			-.31			-.10							-.13
M			3.44			4.19							2.04
SD			1.02			.61							.36

* $p < .05$. ** $p < .01$.

표 2.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n=323)

적합도	χ^2	df	GFI	NFI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65.281	48	.969	.977	.991	.994	.033[.002, .052]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표 2 참조), $\chi^2=65.281(df=48, p<.001)$, GFI=.969, NFI=.977, TLI=.991, CFI=.994, RMSEA=.033(90% 신뢰구간에서 .002~.052)로 나타나 본 연구의 자료가 연구모형에 잘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9, p<.001$). 더불어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로 가는 경로($\beta=.33, p<.001$)와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이어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eta=.23, p<.001$).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의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진행하였다(Bollen & Stine, 1990). 매개효과 검증 결과,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의 매개효과의 값이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어머니의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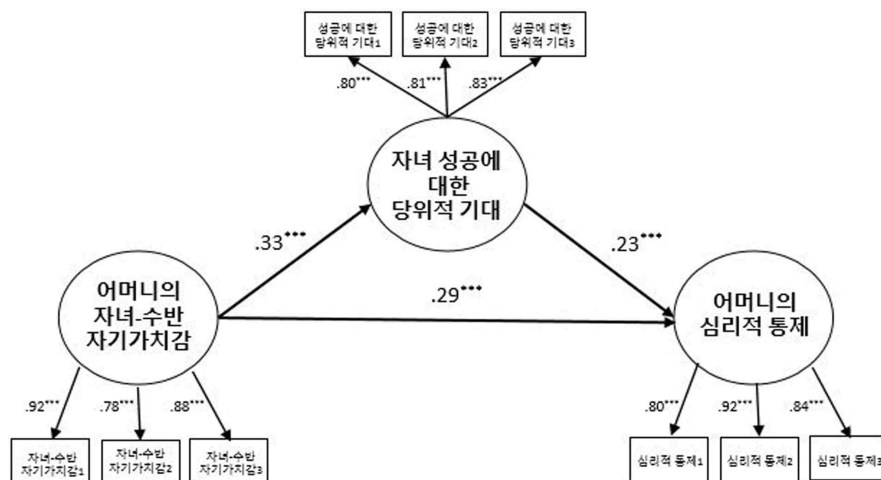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 $p<.001$,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수치임.

표 3.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03*	.01	.01	.06

* $p < .01$

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논 의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한국 부모들의 존재적 의미나 자기가치감이 자녀의 성공 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설경옥 등, 2015; 안유선, 유성경, 2019; 최경애, 유금란, 2019). 자녀에게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공이 바로 자신의 성공이기 때문에 자녀 성공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자녀 성공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살피고,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양한 심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자녀에게 압박을 가하는 심리적 통제를 하는 변인으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주요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

가치감은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은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 양육을 많이 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설경옥 등, 2015; 안유선, 유성경, 2019; Ng et al., 2014; Grolnick et al., 2007), 자녀를 자신의 삶의 의미로 여기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녀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김세영, 정태연, 2013; 박영신 등, 2002).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문영심, 2004)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가치나 존재 의미를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결부시키며(박영신, 김의철, 2003; 설경옥 등, 2015; 안유선, 유성경, 2019; 최경애, 유금란, 2019),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원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김순환, 박승민, 2015; 김은정, 2015; 조설애, 2016),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가 많은 한국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된다. 향후, 다양한 연령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와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가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을수록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를 높여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자신의 가치감을 확인하려는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자녀의 성공 관련 기대와 관련된 취약성을 지닌다면, 이 역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선행 요인으로서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역할에 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와 심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본 연구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어머니의 자기가치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자녀 성공 관련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심리적 통제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어머니에게 직접 측정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매개하는 선행 요인으로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 외에 자녀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녀가 미래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미래에 성공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또한 할 수 있다. 향후 자녀의 미래를 실패 지향적 방향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기대 유형을 탐색하고, 이 기대들이 실제로 어머니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는 자녀가 지각하는 심리적 통제 척도의 주어를 어머니의 입장으로 수정한 것이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실제로 자녀에게 행하는 심리적 통제 유형을 탐색하고, 이 양육 행동들이 자녀에게도 심리적 통제로 지각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 기대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향후,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국 부모의 특성에 관한 후속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촉진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성공과 실패를 중시한다면 자녀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성공을 최대화하도록 할 것이다(Grolnick et al., 2007). 한국 사회가 외형적인 성공을 중시한다면 부모는 그만큼 자녀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부모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희, 임성택 (2010).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김민정 (2011).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양육신념, 자녀기대감과 부모역할지능 간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3), 155-170.
- 김세영, 정태연 (2013). 한국 어머니에게 자녀가 갖는 삶의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149.
- 김순환, 박승민 (2015). 청년 자녀의 집 떠나기 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위기감과 대처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과 상담*, 5(1), 75-97.
- 김영화 (1992). 학부모의 교육열: 사회계층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0(4), 173-197.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가족과 문화*, 27(1), 69-116.
- 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학업성취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문연심 (2004). 부모-자녀 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준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서연, 정영숙 (2010).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및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17-32.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1), 53-73.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 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1), 103-139.
- 박은희, 이소희 (2004).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1), 35-56.
- 배효숙, 홍혜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8), 27-54.
- 설경옥, 경예나, 박지은 (2015).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09-131.
- 송영명 (2011). 학습부진학생의 부모관련 변인 및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자기손상전략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9(1), 25-57.
- 안유선, 유성경 (2019). 어머니의 자기분화, 심리적 통제 양육 관계에서 자녀수반자기가치와 불안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

- 학회지: 여성, 24(2), 125-147.
- 이도형, 김예은, 유소영, 김명선, 박미정, 연구진 (2018). 부모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대학생들의 부모기대에 대한 경험: 합의적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821-853.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71-298.
- 이미정, 도현심, 지연경 (2011). 부와 모의 통제가 남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32(5), 67-84.
- 이수인 (2010).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한 가족 및 학교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8, 256-299.
- 이운기 (2005).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선, 김종남 (2019). 지각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165-189.
- 이종각 (2003). 외국의 교육열 사례: 외국에는 어떤 교육열 현상이 나타나는가? 중국, 일본, 미국, 이스라엘. 한국교육개발원.
- 이준형 (2017). 집중적인 모성이데올로기가 학령기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공에 대한 당위적 기대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 (1996). 부모역할행동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들에 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5(2), 1-16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전숙영 (2012). 어머니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불안: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4), 61-79.
- 정순우 (1999). 한국사회 교육열에 관한 역사·문화적 접근. 교육사회학연구, 9(1), 1-16.
- 정중희, 정현희, 이귀숙 (2009).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77-393.
- 조설애 (2016). 가족 의미의 양면성과 행복과의 관계: 중년 부모와 청년 자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유진 (2013). 어머니의 자녀미래기대,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상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추상엽, 임성문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 인지적 의지통제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성취압력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4), 169-198.
- 최경애, 유금란 (2019). 어머니의 자녀 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관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

- 초학회논문지, 19(5), 612-623.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격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994(1), 65-82.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대학생의 학업 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 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허재홍, 진현정 (2008). 문화성향에 따라 자기 고향 편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475-1487.
- 현 주, 이재분, 이해영 (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홍기원, 김명소, 이종택, 한영석 (2003). 한국 성인 남녀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2), 33-52.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ollen, K. A., & Stine, R. (1990). Direct and indirect effects: Classical and bootstrap estimates of variability. *Sociological Methodology*, 20, 115-140.
- Choi, S. C., & Lee, S. J. (2002). Two-component model of Chemyon-oriented behaviors in Korea: Constructive and defensive Chemy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3), 332-345.
- Conger, K. J., Conger, R. D., & Scaramella, L. V. (1997). Parents, siblings,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13-138.
- Crocker, J., & Knight, K. M. (2005).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4), 200-203.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Eaton, M. M., & Pomerantz, E. M. (2004). *Parental contingent self-worth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Grolnick, W. S., Price, C. E., Beiswenger, K. L., & Sauck, C. C. (2007). Evaluative pressure in mothers: Effects of situatio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on autonomy supportive versus controll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3(4), 991-1002.
- Hauser, S. T., Powers, S. I., & Noam, G. (1991).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Paths of ego development*. New York: Free Press.

- Higgins, E. T. (1992). *Social cognition as a social science: How social action creates meaning*. New York: Guilford.
- Leung, J. T. Y., & Shek, D. T. L. (2011). Validation of the Chinese parental expectation on child's future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n Disability and Human Development, 10*(3), 267-274.
- Liao, Y., Gramann, K., Feng, W., Deák, G. O., & Li, H. (2011). This ought to be good: Brain activity accompanying positive and negative expectations and outcomes. *Psychophysiology, 48*(10), 1412-1419.
- Ng, F. F., Pomerantz, E. M., & De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1), 355-369.
- Ng, F. F., & Wei, J. (2020). Delving into the minds of Chinese parents: What beliefs motivat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4*(1), 61-67.
- Park, S. Y., & Cheah, C. S. L. (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1), 24-34.
- Shulman, S., Collins, W. A., & Dital, M. (1993).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peer-perceived competence during middle childhood and preadolescence in Israel.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2), 204-218.
- Soenens, B., Vansteenkiste, M., & Luyten, P. (2010).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 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17-256.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Vansteenkiste, M., Zhou, M., Lens, W., & Soenens, B. (2005). Experiences of autonomy and control among Chinese learners: Vitalizing or immobiliz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468.
- Wang, J., & Wang, X.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 Zhao, J., & Wang, M. (2014). Mothers' academic involvement and children's achievement: Children's theory of intelligence as a mediator.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30-136.
- 1차원고접수 : 2020. 04. 19.
심사통과접수 : 2020. 05. 25.
최종원고접수 : 2020. 06. 25.

Mediating Effect of Should Expectation of Child's Succ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and Psychological Controls

In Yeong Lee

Young Sook C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hould expectation of child's succ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and psychological control. For model verificat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323 middle-aged mothers living in Busan by using such measures as child-based self-worth, should expectation of child's success, and psychological control.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the AMOS 26.0 program, the direct effect of child-based self-worth on psychological control was significan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hould expectation of child's success, the indirect effect of should expectation of child's succ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and psychological contro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 role of parent for child's success in the process of inducing the psychological control by the parent.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es in discussion section.

Key words : child-based self-worth, should expectation of child's success, psychological control, parental expectation